

이 대통령, 대한 국민들로부터 '임명장' 수여받아 광복절, '국민주권 정부' 선포

광화문서 '국민임명식'

“국정 운영 철학·비전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 주권자 충직한 일꾼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직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식 취임행사인 '국민임명식'을 열고 국민 대표 80인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 임명식’에 하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명칭된 국민 임명식은 주권자인 국민 손으로, 국민의 충직한 일꾼 역할을 할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뜻을 담았다.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만 한 뒤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이 대

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 주권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주권 대축제’로 진행된 이날 임명식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 대표 80인이 올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표단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로 광복동이 인고 목연육 자사의 아들 목장근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감사인사에서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에게 접박한 공동의 목표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행복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배양된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

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고난과 시련이 줄처럼 멈출 줄 몰랐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굳건히 일어났다”며 “4·19 혁명부터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이고,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라며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가 상상하고, 꿈꿔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국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롭다.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도 참석했다. /뉴시스

평생의 통일 열정, 결실 맺다

방승송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전북 장수에서 태어난 한 재야 통일 운동가가 마침내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되어 귀감이 되고 있다.



30여 년간 현장에서 노동운동과 남북 민간교류와 평화운동에 매진해 온 방승송(61)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가 헌법상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되어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방 신임 사무처장은 완산고와 전주대 한문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젊은 시절부터 노동운동과 평화통일 운동에 매진한 그는 ‘일하는 청년들의 놀이마당 새싹이’ 대표, 전북청년노동자회 회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을 거쳐 사회변화를 위한 현장 활동에 온 몸을 던졌다. 특히 2019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개발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2021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상임대표로 활동하

며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한 길을 걸었다. 2021년, 민간 통일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통일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은 그는, 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 전북대책위, 전북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 등 사회 각계 현장에서 도 땀을 수 없는 이력이었다. 정치권에서도 그는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전북선대위 상임판결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 2본부 부본부장을 맡으며 치열한 선거현장을 누볐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특히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맡아 전국을 발로 뛰며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기도 하다. 올해 3월, 전북도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14일이 넘는 기간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던 그가 이제는 헌법기관의 사무처장으로서 남북 관계 개선과 민간 통일운동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방 사무처장은 “본단의 장벽을 허물고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은 한 세대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힌다. /이만호 기자

이 대통령, '빛의 혁명' 완성 · 평화 통일 의지 천명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광복 의미 현 관점에서 재조명



'대한이 살았다!' 지난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에서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경축사는 단순한 기념사를 넘어 분열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은 이 대통령은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다”라는 감동적인 인사로 경축사를 시작하며, 광복의 의미를 현재적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정치적 격변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며, 이를 3·1혁명부터 시작된 역사적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 불 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며, 시민들의 촛불 집회를 통해 완성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표현으로 최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국민의 지력을 찬사했다. 경축사의 핵심은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 이 대통령은 “북쪽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기존 대북정책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

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정의하며, 평화공존을 통한 점진적 통일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등의 실질적 조치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일수도 60주년을 맞은 올해, 이 대통령은 균형 잡힌 한일관계 정립의 대의를 보였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땅히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정의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정치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성하며, 정치문화 개혁의 의지를 천명했다. 경축사 후반부에서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술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한다”며 120년 전 을사늑약의 교훈을 언급하고, “한걸음 뒤처지면 고난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

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육성 △에너지 전환 가속화 △소프트파워 강화를 통한 문화강국 실현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이날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일관되게 ‘빛’을 키워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가자”며 희망적인 미래 비전으로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고교 소에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북도정, 국정과제 부합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전북도정의 방향 전환과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수 정책실장은 최근 논평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일부 전북 핵심사업이 국정과제와 연계됐지만, 여전히 정책 기조 불일치와 실행 가능성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AI·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RE100), 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 실장은 “전북도정은 여전히 올림피 유치를 목표로 한 SOC·대규모 도목 사업이 우선이고, 미래산업 전략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며 “새 정부 비전과 연결되는 서사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SOC 위주 사업은 줄이고, RE100 산업단지과 피지컬 AI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전북의 잠재력을 살리는 미래산업 중심으로 도정을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가정법원 반드시 설치돼야”

전주시의회 · 전북지방변호사회 협력 다짐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최근 의정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정심길(서신동) 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인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법 행정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



기로 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제421회 임시회에서 정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 현안 사업 '탄력'

2025년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제·부안·대야면, 남원·장수·임실·순창, 정읍·고창, 익산 등 도내 주요 지역에 걸쳐 다양한 사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김제 3개 사업 18억원, 부안 5개 사업 15억원, 대야면 1개 사업 4억원 등 총 35억 원을 확보했다. 김제시는 그린우드 기구·육산이파

트 중로 개설, 도로 보수, 지방도 712호선 위험도로 개선, 부안군은 파크골프장 조성, 실내 테니스장 건립, 신척마을 우수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농업 기반을 강화하며, 군산시 대야면은 철봉제 수리시설 개보수로 재방 누수 위험을 해소한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50억원을 확보했다. 남원은 농업 기반 시설과 보행자 보호시설 등에 12억 원, 장수는 공영주차장·복합 문화시설 등에 15억 원,

임실은 복합 행정·문화공간 등에 11억 원, 순창은 수변 길 조성교량 보수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 사업 등에 12억 원을 확보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7억원을 확보, 정읍은 노인회 정읍읍지회 증축, 정우면 주민체육시설, 감곡면 소교량 정비, 정읍역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4건, 고창은 수동·사포지구 침수 예방과 꽃 정원단지-군립체육관 교차로 도로 확장·포장 등 2건 사업에 배정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은 21억 원을 확보,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하나로 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성당면 갈산리 배수로 정비 등 재난 예방과 시민 여가·체육 환경 개선에 투입된다. 이번 전북 국회의원들의 특별교부세 확보는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도내 각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개선, 재난 대비, 여가 및 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